

못자리

2월

제 1709호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사목국 못자리 담당 전화번호 054)858-3114~5 홈페이지 <http://cafe.daum.net/motzary>



못자리 친구들, 지난 1월에 이어서 두 번째 소개할 성지는 '서울대교구'의 성지들입니다. '서울 도심 속에 성지들이 있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에도 성지들이 많이 있어요.

'명동성당'은 한국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한 곳이고, '당고개 성지'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어머니 복자 이성례 마리아와 9명의 성인이 순교한 곳이며, '새남터 순교 성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앵베르 주교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가 이곳에서 순교하셨어요.

못자리 친구들도 서울로 성지 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복음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루카 2,22-32>

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신부님의 주일학교 시절



Fr.서동호 베드로

첫영성체를 할 때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부님도 첫영성체를 모시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커서 신부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모셨던 꼬마는

신부님이 되어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첫영성체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첫영성체를 받을 때 빌고 싶은 소원은 무엇인가요?

우 리 들 이 야 기 ★



★모전동 성당 3학년 정수현 아가다

시메온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느님을 뜻을 찾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빛과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살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키워나가야겠습니다.

매일 나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실천들이 우리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전동 성당 4학년 정서희 라파엘라

오늘의 복음

2월 9일 연중 제5주일 <루카 5,1-11>

1 예수님께서 겔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2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4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7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9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10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답3 퀴즈

오늘 복음에서 세례명을 찾아보세요.

--	--	--



다른 그림 찾기



↓ 다른 곳도 그림을 찾으세요.



오늘의 복음

2월 16일 연중 제6주일 <6,17.20-26>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17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20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24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25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이달의 생활성가

어린이처럼

2월은 6학년 친구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죠?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걱정없이 해맑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보았어요.



@종저 유튜브 - Hymns Catholic

우 리 들 이 야 기 ★



★계림동 성당 2학년 권유림 로사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아픈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주시고 보살펴주신것 처럼
우리도 주일에 성당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내 주위에 힘든친구들 에게 위로를 해주고싶다.



★계림동 성당 4학년 권유진 올리바

오늘의 복음

2월 23일 연중 제7주일 <루카 6,27-3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7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빵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빵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두어라. 30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31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32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33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34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36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38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성경 도시

로마(Roma)

- 이탈리아 수도이며 이탈리아 반도 중부 지역 테베레강 연안에 있는 도시.
- 교황님이 계신 바티칸이 이곳에 있음.
- 사도 바오로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함. (로마 1,15).
- 네로 황제 박해 때(64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오로 모두 순교한 곳.
-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곳이며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이기에 '영원한 도시'라고 불림.

퍼즐

가로세로

예	영	계	은	총	베	갈	호	당	마
봉	물	측	량	혜	히	드	릴	수	카
사	헌	생	활	흙	라	자	로	레	망
랑	연	색	각	꽃	가	령	호	밤	아
정	민	작	비	밭	성	미	숫	가	루
통	서	자	두	부	지	혜	가	상	출
중	비	방	탕	축	성	어	부	상	속
심	상	속	량	가	망	물	천	사	요
모	락	예	언	자	석	낙	고	량	령
아	계	운	행	복	고	방	억	기	추

1.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OO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루카 2,23>
- 교회에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모든 것.
2. 예수님께서서 겔네사렛 000에 서 계시고 <루카 5,1>
- 호수의 언저리.
3.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OO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루카6,22>
- 근거 없는 말로 나를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함.
4.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00으로 서로 꾸어 준다. <루카 6,34>
- 앞일을 잘 헤아려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5. 너희 아버지께서 OO하신 것처럼 너희도 00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 나를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1주간> : 주님 봉헌 축일

1. 2월 첫주는 ○○ ○○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빠진 글자는 무엇일까요?

- ① 주님 성찬
- ② 주님 봉헌
- ③ 예수 성심
- ④ 성모 승천

2. 오늘 복음을 읽고 ○○을 채워 보세요.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을 본 것입니다.

<2주간> : 연중 제5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 ① 예수님께서 () 호숫가에 서 계시고,
- ②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을 듣고 있을 때였다.
- ③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2. 오늘 복음을 읽고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 | | |
|-----------------------|-------------------------|
| ①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 · ㉔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
| ②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 · ㉕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
| ③ 두려워하지 마라. | · ㉖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

못자리 카페에
많이 많이
응모해 주세요.



<3주간> : 연중 제6주일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가 어디에 서셨나요?

- ① 평지 ② 산꼭대기 ③ 성당 마당 ④ 교구청 주차장

2. 오늘 복음에서 '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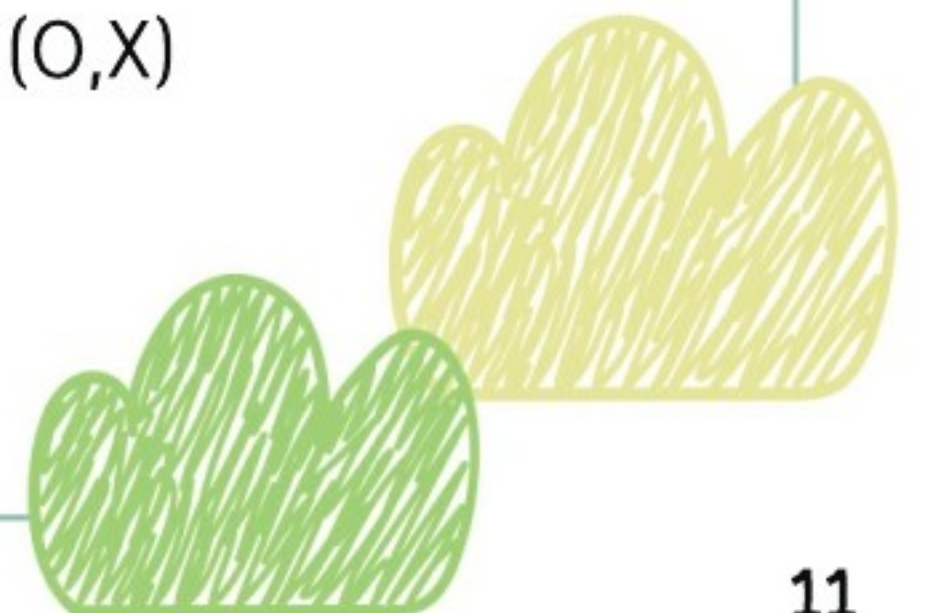
<4주간> : 연중 제7주일

1. 오늘 복음을 읽고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②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③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같은 뺨을 때려라.
④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2. 오늘 복음을 읽고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O,X)
② 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조차 미워한다. (O,X)
③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O,X)



당첨자

12월 15일 정답자

남성동 전우찬 한수빈

12월 22일 정답자

모전동 강나원 정수현

12월 29일 정답자

화 령 홍주한 조예준

01월 05일 정답자

계림동 김가영



알림판

◆ 3월 못자리 "우리들 이야기" 순서

- 3월 2일 : 남성동 성당
- 3월 30일 : 북 면 성당

(※ 원고는 2월 4일까지 사목국 이메일로 보내주세요.)